

2008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상

‘봉영농장’ - 고영미 대표

제주지역본부 과장 김성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온평리에 위치한 '봉영농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축산전공 후 양돈축협에서 축산농가 지도업무와 자금정책을 담당하면서 현장과 실전을 몸에 익혔던 고영미 대표와 그의 남편 고봉석 씨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2007년 HACCP인증, 2008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에서 우수농가로 선정, 2009년에는 양돈농가 중 국내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사육현황 및 관리

축사면적 2,049㎡로 모돈 180두 규모로 한 달에 8~9차례에 걸쳐 270~280마리 가량의 비육돈을 출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정책 특성상 외부에서 종돈반입 금지로 축산진흥원 내 종축개발협회 정액 100%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후보돈(F1)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또한 성장단계별 관리는 물론 모돈 유량이 풍부한 포유자돈일수록 신선한 물을 많이 급여하고 이유자돈은 액상사료 급여, 비육돈의 경우 비육후기사료를 60일 정도 급여하는 중점관리사항을 두고 있다. 그 외 폐사축 처리를 하는 가축처리위생시설, 퇴비를 모아둔 하우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거듭나다

봉영농장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한 처리시설은 하루 10톤의 가축분뇨를 액비 또는 정화처리수로 생산한다. 여기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물리적 작용을 통해 냄새 없는 고품질 액비 또는 무색·무취의 정화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는 전천후 차세대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순수기술 CK-EPM공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액비를 200만㎡의 경종농가에 살포하고 있다. 이에 화학비료 사용감소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축산과 농업 간의 친환경 접목을 가능케 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환경의 날 양돈 분야에서 서귀포시 환경대상 1호로 지정되었다. 전 축종을 망라해 앞으로는 친환경만이 살 길이라고 확신하는 이 부부의 신념은 최근 친환경축산 비전선포대회를 개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한결같은 마음

'09년 상반기 봉영농장의 냉도체 판정 비율은 출하두수 1,499두 중 1,349두(90%)가 냉도체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육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농장주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상반기 등급판정 결과로 육질등급 1* 등급 출현율이 16.6%로 전국평균 2.2%보다 훨씬 높으며 육량등급 A·B등급 출현율도 89.7%로 전국 평균 68.5%보다 21.2%나 높았다. 이렇게 변함없는 우수한 등급판정결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의 한결같은 마음과 꾸준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09년 상반기 등급판정 결과〉

(기간 : '09.1.1~6.30)

육질등급	1*	1	2	3	총합계
두수	249	1,043	203	4	1,499
봉영농장	16.6%	69.8	13.5	0.3	100
전국	2.2%	70.1	22.6	1.6	100